

2018 러시아월드컵 | 프랑스 vs 크로아티아 결승 빅뱅... 우승열쇠를 쥔 감독은?

# 데상 감독 '실리의 방패축구' vs 달리치 감독 '끈끈한 조직축구'

(프랑스)

(크로아티아)



## ● '꽃길' 걸어온 데상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이끈 대표팀 주장 영건 그리즈만·음바페·포그바 중심 세대교체 화려한 개인기 대신 '수비에 방점' 이기는 축구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에 오른 프랑스의 디디에 데상(50)감독과 크로아티아의 즐라트코 달리치(52)감독은 여러모로 비교된다. 한쪽은 선수와 지도자 모두 엘리트코스를 밟았고, 다른 쪽은 무명의 선수시절을 거쳐 지도자로서 만개했다.

이적전문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가 공개한 월드컵 본선 32개국 감독 연봉을 보면, 데상은 350만 유로(약 44억원)로 공동 2위고, 달리치는 55만 유로(약 7억원)로 23위다. 연봉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명도에서 그만큼 차이가 났다.

데상은 프랑스가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대표팀 주장이었다. 선수시절만큼 지도자로서도 꽃길을 걸었다. 2012년 여름 처음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2014년 월드컵 8강에 올랐다. 유로 2016 준우승에 이어 이번 월드컵에서도 결승행에 성공했다.

팀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이는 데상의 지도력 덕분이다. 그는 과감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그리즈만과 음바페, 포그바 등 4년 뒤가 더 기대되는 20대의 젊은 선수들을 중심에 놓았다. 몸값 높은 이들이 개인플레이 대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데상이다. 아울러 화려한 개인기 대신 철저히 실리축구를 택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방점을 찍었다. 프랑스가 우승하면 데상은 사상 3번째로 선수와 감독으로 월드컵 정상에 밟게 된다. 데상은 "새

## ● '흙길' 걸어온 달리치

자국리그서 현역 생활...대표팀 경험도 없어 작년 10월 부임, 스타들로 단단한 원팀 조합 교체 투입 거부 선수 퇴출 '단호한 카리스마'

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달리치의 이력은 변변치 않다. 1983년 프로에 데뷔해 2000년 은퇴할 때까지 대부분 자국리그에서 뛰었다. 국가대표 경험도 없다. 은퇴 이후엔 자국 클럽과 알 힐랄(사우디) 알 아인(UAE) 등 중동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클럽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은 그는 지난해 10월 대표팀을 맡았다. 흔들리는 팀을 다잡은 그는 그리스와 플레이오프까지 거치며 본선 무대를 밟았다.

그의 지도철학은 조직력의 팀이다. 만주키치와 모드리치, 라키티치, 페리시치 등 이름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보여준 단호함에서 그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나이지리아전에서 니콜라 칼리니치가 부상을 이유로 교체투입을 거부하자 아예 퇴출시켜버렸다. 이 사건은 단단한 원팀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16강부터 3경기 연속 연장승부를 펼치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며 결승까지 오른 원동력이었다.

달리치는 잉글랜드와 4강전에 교체를 머뭇거리던 이유에 대해 "교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라운드의 선수 중 그 누구도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선수들의 정신력을 칭찬했다. 결승전에 대해 그는 "최고의 경기를 위해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명성이나 연봉을 떠나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자웅을 겨루는

데상과 달리치. 누가 더 강한 원팀을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최형길 전문가  
choihg2@donga.com



▲ 참조 같은 인생을 살아온 크로아티아의 즐라트코 달리치 감독. 1998년 대회 때는 관중으로 자국의 경기를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과 함께 조국의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을 위해 투혼을 불태우려고 한다.

## 이민자 후손 vs 난민 출신

(프랑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선수 중 21명...15명 아프리카 출신 모드리치 등 크로아 선수 내전의 기억 공유

2018월드컵 결승전은 난민생활을 했거나 이민자가정 출신의 선수들이 만드는 무대다.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프랑스 선수단은 23명 엔트리 가운데 21명이 이민자가정의 후손이다. 15명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의 아버지는 카메룬 국적, 어머니는 알제리 사람이다. 벨기에와 4강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수비수 사뮈엘 울티라스는 카메룬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프랑스로 건너왔다. 팀의 리더 앙투안 그리즈만은 아버지가 독일, 어머니가 포르투갈 사람이다. 폴 포그바는 기니에서, 은골로 캉테는 말리에서 프랑스로 각각 이주해왔다.

지단~앙리~비에라로 상징되는 1998년 우승팀 '되블뤼'에는 12명의 선수가 이민자가정 출신이었다. 이들은 모국의 문화를 새로 정착한 프랑스의 축구문화에 결합시켜 아트사커를 만들어냈다. 이번 대표팀은 선배 이민자출신 선수들이 만들어놓은 예술의 토대에 스피드를 더했다. 초원을 달리는 맹수를 연상시키는 아프리카 출

신 선수들의 스피드에 상대팀은 허물어졌다.

크로아티아대표팀의 애칭은 '불명어리'다. 16강전부터 시작해 3경기 연속 연장전까지 치르는 대혈투 속에서 선수들의 투지는 빛났다. 몇몇 선수들은 발을 절룩거리면서도 감독에게 교체시인을 내지 않았다. 3경기 모두 먼저 골을 허용하고도 따라붙은 투지와 열정은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줬다.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축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유럽의 화약고였던 유고에서 내전의 소용돌이를 경험했다. 팀의 리더 루카 모드리치는 6살 때 세르비아 민병대들에 쫓겨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를 아꼈던 할아버지는 당시 민병대에 의해 살해됐다.

가족이 빨빨이 흩어져 살며 힘든 생활도 겪었다.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모드리치는 오직 축구만이 힘든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공을 차며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당시의 쓰라린 기억을 공유했다. 프랑스의 다양성과 반대되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뭉쳤다. 위기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마침내 첫 월드컵 우승에 도전한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지만 이들은 몸을 지배하는 정신의 힘을 믿는다.

김종건 전문가 marco@dpnga.com

## 佛 우승팬 아르헨·우루과이와 동물...크로아는 첫 우승

(2회 우승)

### 월드컵 우승의 역사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대결로 짜여진 2018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16일 0시(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프랑스의 결승행은 이번이 세 번째, 크로아티아는 첫 도전이다. 만약 프랑스가 1998년 자국대회에 이어 통산 두 번

째 패권을 쥐면 브라질(5회)~이탈리아~독일(이상 4회)의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이상 2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프랑스는 2006년 독일대회에서도 결승에 진출했지만 이탈리아에 승부차기 끝에 눈물을 흘렸다. 당시 프랑스대표팀 '에이스' 지네딘 지단(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A매치에서 그의 가족을 비속어로

모욕한 상대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에 박치기를 한 뒤 쓸쓸히 퇴장을 당했다.

그 외에 잉글랜드와 스페인이 각각 1회씩 월드컵을 품에 안았는데, 개최국이 우승한 것은 6회(1930년 우루과이·1934년 이탈리아·1966년 잉글랜드·1974년 독일·1978년 아르헨티나·1998년 프랑스)이고, 크로아티아처럼 처음 결승에 오른 국가가 내친 김에 우승트로피까지 품에 안은 기억은 잉글랜드와 스페인(2010년 남아공)이 유일하다.

준우승은 올해 대회에 나서지 못한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경험을 했다. 무려 3차례 결승전에서 전부 무릎을 꿇었다. 체코와 헝가리가 나란히 2회씩, 스웨덴이 1958년 자국대회에서 한 번 결승에 올랐지만 브라질에 2-5로 져 준우승에 그쳤다.

올해 결승전은 8만2318명의 만원관중이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대회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운집한 것은 1950년 브라질대회였다. 개최국과 우루과이가 맞선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스타디움에는 무려 19만 9954명이 운집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